

SK 2010 한국시리즈 4연승으로 우승

✎ 최유탍 기자 | ㉠ 승인 2010.10.19

2000년대 한국 프로야구 최고구단 SK 와이번스가 지난해 내준 한국시리즈 왕좌자리를 되찾으며 팀 최다 우승기록을 세웠다.

3연승으로 9부 능선을 쉽게 넘은 SK는 1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0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4차전에서 철벽 마운드와 한국시리즈 MVP 박정권의 4회 터진 결승타이자 빼기타인 2타점 2루타를 앞세워 삼성을 4-2으로 물리치고 4연승으로 대망의 우승컵을 들었다.

특히 4차전 승리와 함께 한국시리즈 우승에는 그동안 아껴둔 복병 게리 글로버의 의외의 호투가 큰 뒷받침이 됐다.

경기 전 김성근 SK감독은 지난 8월 15일 두산전 이후 66일 만에 마운드에 오를 글로버의 연습투구를 보고 3회만 버텨주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좋게 보지 않았지만, SK 한국시리즈 원년 우승멤버 글로버의 진가는 경기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다.

이날 글로버는 4이닝 동안 단 1개의 안타만 허용했을 뿐 무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이면서 SK 철벽마운드 운영의 큰 힘을 보탤었다.

글로버의 호투에 SK 타선도 초반부터 폭발했다.

3회까지 삼성 선발 장원삼에게 공공 뒤편 SK 타력은 4회 초 선두타자 정근우와 다음 타자 이호준이 안타를 치면서 불이 붙었다.

4회 초 무사 1, 2루 찬스에서 당연히 SK는 최정으로부터 희생번트를 시도했고, 최정은 정확하게 임무를 완수해 1사 2, 3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박재홍은 볼넷을 얻었고, 1사 만루에서 박경완이 밀어내기 선취점을 올렸다.

계속되는 1사 만루에서 '무쇠팔' 박정권이 기대에 부응하듯 상대 투수 장원삼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2타점 2루타로 승리의 결승타이자 빼기타로 승부를 3-0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6회 최정은 몸에 맞는 볼로 진루한 후 김재현의 내야땅볼 때 화끈한 주루플레이로 3루까지 진루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 줬고, 이어 2사 3루에서 박경완이 최정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좌전적시타로 4-0으

로 승부의 싸기를 박았다.

통쾌한 타력에 힘을 얻은 마운드도 호투한 글로버에 이어 전병두, 정우람, 송은범, 작은 이승호 등을 내세워 8회 말 1사까지 잘 막았지만, 갑자기 작은 이승호가 흔들리면서 1사 1, 3루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4연승을 끝내겠다는 듯이 김성근 감독은 곧바로 선발 에이스 김광현을 전격 출격시켰고, 이에 김광현은 박한이에게 볼넷과 함께 만루 위기에서 박석민에게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로 1점을 내줬지만 더 이상의 실점은 하지 않았다.

이어 김광현은 다시 9회 말에 올랐다. 김광현이 선두타자 박진만을 볼넷으로 보내자 승부사 김성근 감독이 곧바로 마운드에 올라 김광현을 추스렸고, 이에 김광현은 이영욱에게 적시타 1개로 1실점만 하고 2010년 한국시리즈 우승의 마침표를 찍었다.

대망의 2010년 한국프로야구는 2000년대 최강팀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SK 승리로 마무리됐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